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1년도 제16호

### 데스크칼럼

**문체부·협회, 학교 폭력 수습에 적극 나서라**

글 / 한종훈 매일일보 기자

### 오피니언칼럼

**코로나로 무너지는 스포츠 산업 현장**

글 / 양종구 논설위원

### 거꾸로 읽는 스포츠

**버리지 못하는 '팀킴' 사인 컬링 스톤**

글 / 김교성 디지털 논설위원

『문화일반 신간』

“한국 스포츠의 현주소 **인권과 스포츠** 책 발간”

『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기본법 제정해 스포츠권 확립을”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 문체부·협회, 학교 폭력 수습에 적극 나서라



2021.05.16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스포츠계가 유명 선수의 과거 학교 폭력 의혹이 폭로되면서 발각 뒤집혔다. 여자배구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매로 시작된 학교 폭력 폭로는 남자 배구를 비롯해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로도 번졌다.

학교 폭력이 폭로되자 해당 선수가 속한 구단 및 프로 연맹 등은 진상 및 전수 조사 등 수습에 나섰다. 의혹에 연루된 다수의 선수들은 무기한 출전 금지, 일부 선수는 선수 생활까지 은퇴했다. 최근에는 과거 일에 대한 진실 규명을 놓고 경찰 고발 및 소송전으로까지 번지면서 기약 없는 싸움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폭력을 막는데 앞장서야 할 각 종목 협회의 미온적 대처는 아쉬운 부문이다. 특히 협회는 별도 자체 조사도 없이 여론 강도와 피해자 진술, 구단의 조사 내용 등에 의존한 국가대표 영구 제명 등 강력한 징계에만 우선권을 두는 모습이다.

지난달 대한배구협회는 학교 폭력 의혹 진실 여부 해소 노력과 책임도 없이 회피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이유로 오한남 협회장이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일반적으로 해당 종목의 협회는 산하의 초·중·고·대학 연맹 등 아마추어를 관장하고 국가대표팀을 지원한다. 학교 폭력은 협회가 관장하는 초·중·고교 시절에 발생하는 만큼, 철저한 진상 파악 및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오히려 성인이 활동하는 프로배구를 총괄하는 배구연맹과 구단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학교 폭력 수습과 함께 시스템부터 새롭게 다져야 한다. 지난해 8월 문체부 주도하에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계 인권 침해와 비리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 법률지원 및 전문기관 연계, 인권 침해·스포츠비리 실태조사 및 폭력 등 예방 교육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런데 이번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의 중심이 돼야 할 스포츠윤리센터는 인사 특혜시비 등 논란만 야기했고,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급기야 지난 3월 이숙진 초대 이사장이 사임하는 촛극도 나왔다.

문체부는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이은정 전 경찰대 학장을 새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학교 폭력의 진상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기구가 수장 없이 한 달 이상 허송세월을 보낸 셈이다.

또 지난 2월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지만, 개선안 대부분이 사후처방식 징계성 대책에 그쳐 실효성에 자체가 의문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교 폭력을 저지르면 처벌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 대회 출전이 금지되며,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은 선수 등록이 원천 봉쇄된다. 내년까지 구축되는 통합 징계 정보 시스템에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도록 추진한다.

프로 스포츠의 경우 신인 선수 선발 시 학교 폭력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도 받는다는 것이 문체부의 주요 학교 폭력 근절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은 학교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는 있지만 폭력을 저지른 시기와 환경을 막기 위한 실질적 대책은 아니다.

더불어 학교 폭력을 저지른 선수에 대해 무작정 강경한 처벌을 내린 것도 과연 옳은 것인지도 의문이 간다. 물론 학교 폭력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며 엄연히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미 십 여년 전에 일어난 일이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소시효도 사실상 끝났다.

선수들은 도의적임 책임 때문에 한창나이에 경기 출전이 어려워진다. 이로 인해 앞으로 또 다른 피해 선수가 나올 수 있다. 당연히 폭력을 저지른 일에 대한 반성과 처벌은 필요하다. 다만 징벌적 성격의 강경책 외에 해당 종목에서 봉사활동 등을 통해 과거 잘못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등 폭력 선수에 대한 수습방안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

# 코로나로 무너지는 스포츠 산업 현장



동아일보  
양종구 논설위원

스포츠용품 업체 A 회장은 요즘 월말이 오는 게 두렵다. 매달 돌아오는 수억 원의 어음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막지 못하면 바로 부도 처리돼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 지난해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매출이 80% 이상 감소해 1년 넘게 빚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 소유 부동산을 다 담보로 잡히고 받은 대출만 수십억 원이다. 최근엔 집안 친척 부동산까지 담보로 잡힌 뒤 어음을 막았다. 그는 “일단 버텨야 살 수 있기에 은행 대출로 막고 있다. 올해는 이렇게 넘길 수 있지만 내년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국내 스포츠 산업도 코로나의 거친 파고에 무너지고 있다. 한 중소 스포츠용품 브랜드는 상황이 악화돼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규모가 큰 글로벌 브랜드들은 코로나 역경에 흔들리지 않지만 중소기업체는 살아남는 게 버겁다고 한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은행 대출로 근근이 버티며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정부 당국의 예상과 달리 백신 접종에 차질을 빚는 등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로이지만 특히 스포츠는 사람들이 움직여야 자금이 흐르는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대회가 열려야, 혹은 사람들이 운동을 해야 티켓 및 스포츠용품 등에 대한 구매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사실상 엘리트 및 아마추어 대회가 섣달은됐다. 지난해 국내 최대의 엘리트 대회인 전국체육대회와 소년체육대회가 열리지 않았다. 각 도민체육대회도 취소됐다. 중소 스포츠용품 업체들의 경우 전국체육대회와 소년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단체복(지역별 유니폼 및 단복) 매출 비중이 크다. 대회 개최를 예상하고 미리 대량 주문했는데 취소되는 바람에 재고가 창고에 쌓여 있는 것이다.

프로 스포츠와 엘리트 일부 종목이 방역 수칙에 따라 경기를 하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프로 스포츠는 10%의 관중만 받을 수 있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 엘리트 및 생활체육 대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을 받아 시설을 활용해야 하는데 지자체가 시설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자체에 시설 운영 자율권을 줬지만 혹 코로나가 터지면 문책을 당할 수 있어 대부분의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일부 개방된 시설에 사람들이 몰려 오히려 방역에 해가 되는 일도 생기고 있다.

공공 스포츠 시설이 통제되다 보니 새로운 현상도 나타났다. 방역에서 자유로운 자전거와 등산, 달리기 등 개인 스포츠 쪽으로 사람들이 몰린 것이다. 국내 모 자전거 업체는 지난해 전년 대비 50% 이상 매출이 증가했고, 올해도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늘었다.

팬데믹 상황에서 스포츠 대회 개최도 방역이 최우선이다. 10일 강원 태백고원체육관에서 개막한 태권도대회에 388개 팀 3500여 선수 임원이 참가했다. 지난해 대회가 열리지 못해 예상보다 800명이 더 참가했지만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가동하고 중등부와 고등부, 대학 일반부로 나눠 숙박과 대회 일정을 분산해 치르고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여야 건강하고 즐겁게 살 수 있다. 통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공공 스포츠 시설을 막으니 사람들이 도로와 산으로 나가는 이유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게 하면서 공공 스포츠 시설을 개방해 대회도 개최하고 국민들이 운동을 즐기게 해야 스포츠 산업은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다.

양종구 논설위원 [yjongk@donga.com](mailto:yjongk@donga.com)

# 버리지 못하는 '팀킴' 사인 컬링 스톤



2021.05.16

매일신문  
김교성 논설위원

장식하거나 보관할 가치가 없어졌음에도 버리지 못하는 물건이 있다. 컬링 스톤이다. 빨간색 손잡이가 달린 컬링 스톤에는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은메달의 주역인 '팀킴'의 사인이 새겨져 있다.

스킵 김은정을 비롯해 김영미, 김선영, 김경애, 김초희 선수와 김민정 감독의 사인이 담겨 있다. 스톤 한쪽에는 이들을 발굴·육성한 국내 '컬링 대부'로 불린 김경두 전 경북컬링협회장의 사인이 새겨져 있다. 기자가 보관하고 있는 이 컬링 스톤은 경남 거창군 소재 거창화강석연구센터에서 만들었다. 공식 경기용이 아닌 사인을 받으려고 특별히 제작 의뢰해 만든 것이다.

하지만 '팀킴'의 사인을 담은 컬링 스톤은 지도자와 선수들의 불화로 빛을 잃었다. 평창의 영광이 채 식기도 전인 2018년 11월 '팀킴'의 지도자 갑질에 대한 호소문 사태가 불거지면서부터다. '팀킴'은 은사인 김경두 전 회장과 김민정 감독, 장반석 믹스더블 감독을 원수처럼 여기며 각종 매체를 통해 비난을 쏟아냈다.

이 때문에 사실상 경북컬링협회 살림을 맡은 김 전 회장과 매니저 역할을 한 장반석 감독은 아직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현재 호소문 사태 발단인 지도자 갑질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훈련비를 운영비로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팀킴'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9일까지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2021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팀킴'은 예선 탈락해 아쉬움을 남겼다. 내년 베이징 대회 출전 티켓이 걸린 6강에 오르지 못한 것이다.

이 대회에서 2020-2021년 국가대표 자격으로 출전한 '팀킴'은 초반 4연패의 부진을 떨치며 막판까지 선전해 미국, 캐나다와 나란히 7승 6패를 기록했으나 승자승 원칙에 밀려 7위를 차지,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팀킴'의 베이징 올림픽 출전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올 12월 예정된 베이징 대회 추가 출전 3개국을 가리는 올림픽 퀄리피케이션을 통과하면 된다. 베이징 대회는 10개국이 참가하며 세계여자선수권대회 6강(스위스, 러시아, 스웨덴, 덴마크, 미국, 캐나다)과 개최국 중국이 티켓을 확보한 상태다. 올림픽 퀄리피케이션에는 이들 7개국을 제외한 가운데 세계컬링연맹 순위로 7~9개국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국은 세계선수권대회 예선 탈락 국가 중 순위가 높아 무난히 참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림픽 퀄리피케이션에 참가하려면 '팀킴'은 먼저 오는 6월 예정된 2021-2022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해야 한다. 2021-2022 국가대표가 퀄리피케이션을 통해 베이징 대회 티켓을 확보하면 직접 올림픽에 나간다.

'팀킴'은 실전 경험이 중요시되는 컬링에서 국내외적으로 최상위권의 경력을 갖춘 데다 팀원 변화도 없어 2021-2022 국가대표 선발전과 퀄리피케이션을 통해 베이징 티켓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팀킴'은 지난 3월 소속 팀을 경북체육회에서 강릉시청으로 바꾸었다. 엔트리 변화도 있었다. 평창 대회 때 후보였던 김초희가 리드로 나서고 김영미가 후보로 대기한다. 팀을 이끄는 스킵 김은정과 평창 대회에서 '영미' 신드롬을 일으킨 김영미는 결혼했다.

아픔을 겪을 때 '세월이 약'이란 속담이 있다. '팀킴'의 호소문 사태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선수들이 평창의 영광에 흠뻑 빠져 있을 때 김경두 전 회장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었다. 결혼을 앞둔 선수들이 있었기에 그는 소속 팀 선수 확대를 꾀했고, 이를 의식한 '팀킴'이 반발하면서 호소문 사태가 발생했다.

김 전 회장 가족들은 각종 기관·단체의 합동 감사와 경찰, 검찰 수사로 파렴치범 취급을 받으며 만신창이가 됐다. 이 과정에서 '팀킴'은 더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기도 했다. 호소문 내용과 수사, 재판 결과를 보면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김 전 회장 가족을 컬링계에서 몰아내고, 복귀를 두려워하는 세력들이 이들의 배후에 있다는 말도 나돈다.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김 전 회장 가족이 '팀킴'을 위해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세상일지라도 은혜를 원수로 갚아서는 안 될 것이다. '팀킴'이 인격적인 성숙을 통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에 다시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 [신간] 한국스포츠의 현주소 '인권과 스포츠'



NEWSIS

한국 스포츠 인권의 문제를 망라하는 책이 나왔다.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스포츠 폭력 사건들을 스포츠 인권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한국 체육의 역사와 사회적 환경, 인권의 영역을 근거해 설명한다.

스포츠 인권의 개념적 정의를 통해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만들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으로 역임 중인 저자가 친절하게 설명한 스포츠 인권 개념, 모두가 생각해보면 좋을 읽을거리, 풍부한 사례 등이 담겼다. 김현수 지음, 380쪽, 노사이드랩, 2만원.

# “스포츠기본법 제정해 스포츠권 확립을”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해 스포츠권을 국가 책무로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용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스포츠 현안과 진단 vol. 27>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통한 스포츠권의 확립 방안'에서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해 스포츠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스포츠권을 공론화해 법률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스포츠 참여를 활성화하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대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스포츠를 복지 차원의 시혜 개념이 아닌 개인 권리이자 국가 의무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스포츠를 어떻게 정의하는가'가 중요한데, 노 선임연구위원은 스포츠를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아실현, 건강,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신체활동이자 문화 행위의 총체'로 정의할 것을 주장했다. 스포츠를 개별 종목뿐 아니라 인간의 신체적 활동, 신체를 통한 문화까지 확대한다면 스포츠권은 '모든 사람이 스포츠를 향유하기 위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로 규정된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기본권으로서 스포츠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며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무를 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체육 관련 법률은 국민체육진흥법을 중심으로 15개가 있지만 스포츠권을 담은 법률은 없다. 스포츠기본법은 스포츠권을 명시하고 체육 정책의 방향과 범위를 결정하는 모법으로서 역할을 한다. 현재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스포츠 관련 법률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도 스포츠기본법 제정은 중요하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스포츠기본법 1조에 스포츠를 권리로 선언하고 스포츠가 자유권과 평등권을 넘어서 사회권적인 내용임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스포츠를 권리로서 선언적으로 규정할 뿐 아니라 스포츠에서 학습권, 평등과 차별 금지, 참여권, 접근권, 노동권, 환경권 등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사회 변화에 따라 인권보호와 증진, 윤리적 공정성 확보, 도핑 방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스포츠의 공동체의식 강화와 갈등 조정 역할을 활용, 스포츠와 관련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스포츠참여권도 포함해야 하는데, 스포츠참여권은 스포츠활동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체적 참여를 보장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수단이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는 아직 스포츠를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데 한계 요소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른 기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부차적 권리라는 편견, 스포츠는 사적 영역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복지라는 인식, 스포츠권은 체육을 생업으로 하는 체육인을 위한 한정된 권리라는 인식이 그것이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스포츠권 확립은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성숙한 민주사회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과 같다"며 "스포츠를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법제화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가 스포츠를 중요한 정책의제로 인정한다는 증거이며, 정책 실천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 주간 스포츠 소식

스포츠 시즌 개막하자 코로나 댈친 태백 '초비상'

<https://www.yna.co.kr/view/AKR20210513135600062?input=1195m>

생준모, 생활스포츠(체육)지도사2급 시험 대비 무료인강 제공

<http://www.gosiweek.com/15808>

한국스포츠마사지자격협회-연천보건의료원, '공동의료봉사 참여' MOU 체결

<http://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60991>

“부산 사람은 해양스포츠 즐긴다” 부산시 체험 프로그램 지원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11\\_0001436532&cID=10811&pID=10800](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11_0001436532&cID=10811&pID=10800)

부산교육청 '온택트 스포츠 줍깅 챌린지' 개최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10\\_0001434951&cID=10811&pID=10800](https://newsis.com/view/?id=NISX20210510_0001434951&cID=10811&pID=10800)

[이정우의 스포츠영어] 시도하지 않으면 성공도 없다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4058578](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4058578)

전라북도체육회, 12~13일 스포츠 인권교육 실시

<https://www.nocutnews.co.kr/news/5551409>

[단독]용산기지 스포츠필드·소프트볼장 연내 개방...10만㎡ 공원 뜬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5/16/SH5HNQRYXJFPNKEK4PEI3ZRV5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5/16/SH5HNQRYXJFPNKEK4PEI3ZRV5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5/16/SH5HNQRYXJFPNKEK4PEI3ZRV5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